



조충기/정회원, 건축사사무소 간향  
by Cho, Chung-kee, KIRA

약력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2005)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건축사! 무엇으로 사는가?

### Architects! What do they live with?

건축사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의 일상으로 주변을 둘러보자

“변호사님! 이러한 일은 어떻게 되며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사님! 우리 회사 매출은 얼마인데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의사선생님!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한데 무슨 병인가요? 약은 무엇을 먹으면 되지요?”

“변리사님, 이 발명품은 특허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특허 출원방법을 정리해주세요?”

상기의 물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건축사는 충분히 알아야한다.

그럼, 계속 이어 가보자

“건축사님! 대지 지반이 몇번인데요. 건평과 연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그가(假) 도면이란거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

이쯤 되면 건축사의 권위는 물론이고 그저 시키면 다해준다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터!

건축사의 위치는 어디에도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나긴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에게 건축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주어 합격한 자에게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 건축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사회는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없이도 세무업무를 이행 할 수 있으나, 건축은 건축사의 날인 없이 허가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으면 주저 없이 지식을 알려 주고 그나마 도면마저 넘기려하는 모양새가 영 불편하다 못해 바보 같음은 나만의 시각인가?

알다시피 건축사자격 획득이 그렇게 만만히 취급되어도 되는지 우리 한번 반성이라도 해보자꾸나! 먼저, 건축사자격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되돌아보자.(물론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것으로 나열해본다.)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본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그러면 건축사 예비시험의 자격기준은 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나긴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에게 건축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주어  
합격한 자에게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 건축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의 건축사의 것이고  
다른 누구의 건축사가 아니면 그 일은 내 것이 되거늘...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건축사 날인 없는 허가는 없다’는 그러한 특권마저 쥐어 주었으면  
우리는 국가자격에 대한 모독은 말아야 않겠는가?  
특권이라면 특권일진데 왜 그리 목말라하며  
오로지 서비스에 서비스를 자청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겠는가?

엇인가?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2. 전문대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의 실무 경력 있는 자
4.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자

그러므로 건축사는 현재의 법으로 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5년의 기간 내 지속적인 실무경력을 가지고 예비시험에도 5년 기간내 합격하여야 한다.

즉, 건축사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러면 건축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일반적인 연령은 어떻게 될까?

머나먼 기억일지는 몰라도 한번 더 되돌려보자.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는 8세, 중학교는 14세, 고등학교는 17세, 대학교는 20세에 입학한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1학년(8세), 2학년(9세), 3학년(10세), 4학년(11세), 5학년(12세), 6학년(13세) 그리고 중학교 1학년(14세), 2학년(15세), 3학년(16세), 고등학교도 1학년(17세), 2학년(18세), 3학년(19세)에, 대학교 1학년(20세), 2학년(21세), 3학년(22세), 4학년(23세-군대입대자는 26). 여기에 더해 사회경력 1년(27세), 2년(28세), 3년(29세), 4년(30세), 5년(31세)... 대체로 어렵지만 첫 시험에 합격하면 32세이다. 통상적으로 3수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문제로 보통 35세 전후에 합격된다. 대학졸업 후 10년이다!

자찬이지만, 누구나 될 수 없는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전문직이 바로 ‘건축사’ 아닌가? 사정이 이러하니 다른 단체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건축사 사회의 청년이 40대가 아니던가?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건축사가 서비스정신이 얼마나 투철했으면... 대 국민 봉사정신이 얼마나 투철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건축사의 지식비용을 그냥 낭비하는지 그 속 한번 베어 찬찬히 살펴나 봤으면...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의 건축사의 것이고 다른 누구의 건축사가 아니면 그 일은 내 것이 되거늘...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겠는가?”하고 말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건축사 날인 없는 허가는 없다’는 그러한 특권마저 쥐어 주었으면 우리는 국가자격에 대한 모독은 말아야 않겠는가? 내가 마다하면 건축사가 아닌자가 ‘허가’라도 낸다던가?

특권이라면 특권일진데 왜 그리 목말라하며 오로지 서비스에 서비스를 자청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